

“족구, K-스포츠로 키워 세계로 나가야”

“족구할 줄 하십니까.”

자리를 권하자마자 홍기용 회장이 질문을 던져왔다. “대한민국 남자치고 족구 한 번 안 해 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실이다.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란 성인 남자 중 족구 한 번 안 해본 사람 찾기는 우산 모양이 새겨진 달고나 뽑기 성공자를 찾는 것보다 쉽지 않을 것이다. 군대를 다녀왔다면 가능성은 더 희박해진다. 온전히 경험자 수로만 치면 ‘국기(國技)’의 자리는 마땅히 태권도가 족구에게 양보해야 할 판이다.

그런데 정작 “좋아하는 운동이 뭘이냐”라는 질문에 섣불리 “족구”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아저씨 운동’, ‘군대 스포츠’의 이미지가 덧씌워진 비운의 인기종목 족구. 왜 이렇게 되었을까.

홍기용 회장은 십수 년간 이런 고약한 편견과 싸워온 사람이다. 아니, 그의 욕심은 고작 이따위 편견을 상대로 한 승리에 머무르지 않는다. 족구를 K-스포츠로 키우고 세계로 나아가 대한민국을 ‘족구중주국’으로 추앙 받도록 만드는 것이 그의 꿈이자 목표다.

족구를 미치도록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족구를 세계 만인의 연인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남자. 홍기용(50) 대한민국족구협회 회장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협회 회장실에서 만났다.

●31년 역사, 2016년 대한체육회 정가맹 단체
“요즘은 그래도 족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예능프로그램이나 리그 중계 등이 방송을 타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홍 회장은 “족구는 남자만 한다”라는 것도 옛말이라고 했다. 언론에 노출이 잘 안 돼서 그렇지 여성들도 족구를 많이 하고 있고, 여성을 위한 족구대회도 열리고 있다. 홍 회장은 “우리 협회 부서 중에는 여성부도 있다”고 했다.

스포츠를 좋아한다는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족구협회가 있고, 심지어 대한체육회 정가맹 단체라는 사실은 잘 모른다. 하지만 대한민국족구협회는 1990년에 창립돼 3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2016년 사단법인으로 면모를 일신하면서 대한체육회 정회원 단체가 됐으며 현재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에 족구협회가 가입돼 있다. 홍 회장은 올해 제2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홍 회장은 뒤늦게 족구에 입문한 케이스다. IMF 시절 다니던 회사가 부도나 하루



“세계인이 족구를 즐기는 날이 올 겁니다”. 홍기용 대한민국족구협회장이 공인구, 족구화와 함께 포즈를 취했다. 세계화를 염두에 둔 족구의 공식 영문명은 ‘J OKGU’지만 한자는 사용하지 않는다. ‘족구(足球)’가 중국에서는 족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주현희 기자 teth1147@donga.com

대중성·경제성·재미 겸비...세계인이 빠질 것
5년 전 대한체육회 정회원...동호인 200만 명
전국체전 정식종목 채택해 대중화 물꼬 터야

아침에 실업자 신세가 돼버린 홍 회장은 1999년 미국으로 건너간다.

“처음 몇 년은 거지생활이었고. 길거리에서 담배꽂초도 주워 피우고, 전기세를 못내 전기가 끊기니까 아파트 매니저가 자기 집에서 전깃줄을 끌어다 줘서 겨우 전등을 켜기도 하고, 그렇게 3~4년 고생을 하다보니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생기고, 기회라는 게 제게도 찾아오더라고요.”

미국에서 사업가로 성공한 홍 회장은 지인의 권유로 족구클럽에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회원들은 속칭 ‘구멍’인 홍 회장을 은근히 무시하며 눈치를 줬다.

“족구를 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다. 차를 몰고 클럽으로 향하다가 갑자기 가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가봐야 또 핀잔이나 들을 텐데. 그만 뒤야겠다 싶어 차를 틀었죠.”

그런데 집 쪽으로 한참 가다보니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 그만 두더라도 지금 그만 두면 괜히 지는 거 같으니, 한 3개월 ‘백세계’ 운동해서 저 사람들이 “제발 우리 팀에 있어달라”고 할 때 보기 좋게 때려 쳐야겠다는 마음이었다. 그래서 다시 유턴. 홍 회장은 이날부터 맹렬한 트레이닝에 들어

갔다. 공을 허공에 매달아놓고 차는 연습을 하고, 잠을 잘 때는 (다리를 찢기 위해) 침대 양쪽에 다리를 벌려놓고 잤다.

“진짜 3개월쯤 지나니 사람들이 잔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멋지게 그만 뒤야 하는데, 그때 이미 족구의 재미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죠.”

그날의 일대사건이 적어도 족구계에서는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만큼이나 의미 있는 ‘족구 유턴’이었겠다고 하니 홍 회장이 “으하하!” 웃었다.

●전국체전 거쳐 세계무대로 간다

요즘 대한민국족구협회에게 최고의 숙원사업은 족구가 전국체전에 정식종목으로 당당히 입성하는 것이다.

“족구는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유일한 구기 스포츠입니다. 이 재미있고, 즐겁고,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가는 종목은 왜 세계적인 스포츠로 못 만드는 겁니까. 왜 아시아 안게임에, 올림픽에 못 나가는 걸까요.”

전국체전은 족구가 K-스포츠의 이듬표를 달고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홍 회장은 ‘족구가 전국체전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야 하는 이유와 정당

●홍기용 회장

- ▲1971년 경기 김포 ▲중앙대 체육학과 졸업 ▲이기엔터프라이즈 대표 ▲2010~2014 미주족구협회 1·2대 회장 ▲2010~2012 미주 한인체육회 이사 ▲2021~ 대한민국족구협회 2대 회장

성’에 대해 ‘대중성’, ‘경제성’, ‘재미’를 꼽았다. 족구가 전국체전 정식종목이 된다면 학교체육의 길이 열리면서 청소년, 학생들에게도 족구를 접할 기회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족구의 ‘진짜 대중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독도와 김치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200만 명의 족구 동호인이 있습니다. 족구는 대한민국을 벗어나 세계인들과 함께 하는 스포츠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언젠가 족구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시상대가 높은 곳에 태극기가 펄럭일 때 우리들의 가슴과 가슴으로 지켜온 족구의 이름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홍 회장이 인터뷰를 마치고 공인구를 씩 들어 보였다. 족구공보다는 조금 작고, 배구공보다는 조금 더 무거운 족구공. 비록 한 뼉 크기의 작고 예쁜 공이지만, 그 꿈은 지구만큼이나 크고 무거워 보였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족구의 역사를 아시나요?



강원도 양구 백두산 부대 정병들이 해발 1200m에 위치한 부대 안 족구장에서 족구를 즐기고 있다. 스포츠동아DB

1968년 공군조종사들 놀이서 시작 순식간에 유행...1978년 전군 보급 (全軍)

삼국유사에는 “신라의 화랑들이 마른 짚 따위나 풀로 공을 엮어 만들어 중간에 벽을 쌓고 발로 차 넘기는 놀이를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신라시대 때 이미 선조들은 족구와 유사한 공놀이를 즐기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현대 족구의 탄생에 대한 기록도 정확히 남아 있다. 1968년 5월 공군 11전투단에서 시작됐다. 자주 5분대기를 해야 했던 공군 조종사들은 지루하고 심심한 대기 중 짧은 시간 안에 즐길 수 있는 놀이가 절실했다. 조종사들은 배구장 네트를 바닥으로 내리고 배구공이나 축구공을 사용해 세 번 만에 차 넘기는 놀이 겸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

이 이름도 없는 공놀이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정덕진(당시 대위), 안택순(중위) 두 장교의 역할이 컸다. 두 사람은 자주 이 공놀이를 즐겼는데 하루는 대대장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는 둘을 호출했다.

대대장은 두 사람에게 “국방부에서 전 군을 대상으로 창안제도를 공모하고 있는데 이걸 한번 올려보라”고 권유했다. “1등하면 상금이 30만 원인데, 이거 받아서 대대 불고기 파티 한 번 하자”는 말도 덧붙였다.

두 사람이 ‘족탁구’라는 이름으로 제출한 이 신박한 구기종목은 이 해 국방부 상신 최우수작품에 선정돼 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았고, 우승상금으로 대대 불고기 파티를 벌일 수 있었다.

“족탁구를 전 군에 보급하라”는 명령에 두 사람은 한 동안 전국의 부대를 돌며 톨을 지도하고 시범경기를 보여주는 일을 했다고 한다. 정덕진 씨는 “김포의 한 부대에서 족구를 보급한 뒤 헬기를 타고 복귀하는데, 아래를 내려다보니 군인들이 여기저기서 땅에 선을 그어놓고 족구를 하고 있더라. 정말 빠르게 보급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다”고 회고했다.

이후 족탁구는 1970년대에 ‘족구’라는 공식명칭을 얻게 되었고 1974년 국방부 체육관리 규칙으로 제정되었으며, 1978년에 본격적으로 전 부대에 보급되기에 이르렀다.

양형모 기자

전기세가 확실하게 절감되는 센추리 초강력 인버터 냉·난방기

사업자등록증 OK
36개월 분납가능

45년 전통의 업소용 전문업체

(상가, 사무실, 공장, 식당, 교회 등)

우와- 센추리 냉난방기 사셨네요. 요즘 전기세는 정말 많이요?

당면하지 센추리 냉난방기는 45년동안 원무발전 한 냉동공조(회사)로 사들- 실속을 30년만기 전문회사라고- 유지비 절감에 냉방 난방 절하고 구매조건도 너무 좋아- 난방부로 구매했지

사장님이 구매하신 전기 36개월 할부는 초기비용 부담없이 무보증 무담보로 사업자 등록증만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특히 업소용은 에너지와 냉방·난방능력과 관련된 이 4가지의 최적화된 A/S시스템과 사용관리까지 해드립니다.

저희 에너지 설계 전문가들이 무료로 직접 방문해서 맞춤형 정밀하게, 가장 유리한 구입조건, 설치조건, 후고제를 보장해서, 즉시문의 해결해 드립니다.

역시- 센추리 냉난방기가 최고구나- 좋은 조건에 받을 수 있는 계를 쓰시고 확실한 이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냉난방기 구입시 꼭 확인하세요!!

전기세가 얼마나 절약되는지? / 냉방·난방 성능이 똑같은지? / 45년동안 고집스럽게 냉난방기를 만든 회사인지?? 초기비용없이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36개월 분납납부가 되는지? / 빠른 설치와 A/S가 되는지??

센추리 공식 판매처 (주) 센추리어컨 제품구입 무료전화 **080-965-7777**